


4차 산업혁명과 '정의로운 민주주의'

권정임/강남훈

- ▶ 1. 4차 산업혁명과 민주주의
- ▶ 1.1 기술관료독재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을 방지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강화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중요하다.
- ▶ 1.2 4차 산업혁명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기술적 물질적 매체와 수단을 발전시킨다.
- ▶ 1.3 제기되는 질문: 어떤 민주주의?
- ▶ 비판적 출발점: 판 빠레이스의 '정의로운 민주주의 기획'

- ▶ 2. 판 바레이스의 '정의로운 민주주의' 기획
 - ▶ 2.1 판 바레이스의 문제의식 또는 출발점: 민주주의(적 절차)에 따른 의사결정과 정의에 따른 의사결정 간의 불일치 가능성.
 - ▶ 2.2 양자 간의 일치를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, 곧 '정의로운 민주주의' 를 기획.
- 

- ▶ 3. '정의로운 민주주의' 의 내용
- ▶ 3.1 민주주의: 분명한 사유를 위해 순전히 도구적 또는 절차적으로 이해. 자유로운 투표, 보편적 참정권, 다수결 원칙으로 구성되는 집단적 의사결정 형태.
- ▶ 3.2 정의: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적 정의.
- ▶ 기본적 자유의 존중+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수단의 축차적 최소극대화(기본소득)+ 좋은 삶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평등한 존중+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한 배려

- ▶ 3.3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정의에 따른 의사결정 간의 일치 보장방법
- ▶ 1) 민주주의의 구체적 절차를 자신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정의 실현에 가장 잘 기여하도록 설계
- ▶ 2) 정의의 우선성: 민주주의와 정의가 양립불가능한 경우 정의를 선택
- ▶ 3) 정의실현 위한 민주주의적 제도 설계에서 효율성 강조. '정의로운 민주주의 프로그램'을 '롤스-마키아벨리프로그램'으로 명명.
- ▶ 4) '정의로운 민주주의' 기획은 결국 '정의에 부합하며 효율적인 민주주의'에 대한 기획.

- ▶ 4. 판 빠레이스의 '정의로운 민주주의' 논리구성 관련 문제점: 두 이론적 공백
- ▶ 4.1 '정의'의 우선성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.
- ▶ 4.2 민주주의에 대한 순전한 도구적 이해. (자유롭고 보편적인 참정권을 전제로) 다수결 원칙을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절차로 보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.

- ▶ 5. 판 빠레이스의 '정의로운 민주주의'에 대한 심층적 이해
- ▶ 5.1 '다수결주의'로서의 민주주의 이해의 숨겨진 전제: 인민주권론
- ▶ 이런 측면에서 판 빠레이스는 민주주의를 협소화·도구화.
- ▶ 5.2 판 빠레이스에게서 '정의'란 확장된 '자유'. 이런 맥락에서 정의를 우선시하는 그의 '정의로운 자유' 기획은 사실상 '헌정 자유(민주)주의' 틀에 기반하는 기획.
- ▶ 5.3 '헌정 자유(민주)주의' 틀에서처럼 판 빠레이스는 '민주주의적 독재'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을 사실상 인민주권, 인민의 집단적 주권보다 우위에 둔다. 이 전통에서 민주주의는 기본권 또는 자유에 비해 부차적이며 협소화 내지 도구화. 이런 맥락에서 '헌정 자유민주주의'는 사실상 '헌정 자유주의'.

- ▶ 6. 헌정 자유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역설
- ▶ 6.1 민주주의의 협소화와 도구화로 인해 특히 불평등이 구조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정 자유주의는 다수 인민(의 실질적 자유)를 억압하는 '자유주의적 독재'를 초래할 수 있다.
- ▶ 6.2 기본권이 '형식적인 자유와 평등'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때, 그 가능성은 더욱 증폭된다. 대표적인 사례: 하이예크

- ▶ 7. 헌정 자유주의의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기획으로서의 판 빠레이스의 '정의로운 민주주의' 기획
- ▶ 7.1 그 출발점: '실질적 자유' 및 그 축차적 극대화를 위한 '기본소득'. 자유권, 기본권의 강화와 실질화
- ▶ 7.2 이는 주권자로서 정치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민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,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현존하는 부정의한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는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'민주주의'의 심화와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.
- ▶ 7.3 이런 맥락에서 판 빠레이스의 '정의로운 자유' 기획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에 기초하는 헌정 자유주의 기획. 나아가 기존의 헌정 자유(민주)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심화 확장하기 위한 기획, 곧 헌정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기획.

- ▶ 8. 헌정 실질적 자유지상주의 기획으로서의 '정의로운 민주주의' 기획의 한계: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또는 도구적 이해
- ▶ 8.1 이 기획이 실현되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: 민주주의의 활성화
- ▶ 8.2 '정의로운 민주주의', 곧 '정의에 부합하며 효율적인 민주주의'의 구체적인 설계를 위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. 판 바레이스의 민주주의 개념에 따른 '정의로운 민주주의' 설계는 기껏해야 선거제도, 다수결 의사결정 제도 차원의 개선에 머무른다.
- ▶ 8.3 민주주의의 원래의 의미, 곧 '인민주권', '자치'를 부각하면서 이에 따른 직간접적 참여 기제를 창출하여 집단지성을 창출하고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때, '정의로운 민주주의'는 더욱 잘 설계된다.

- ▶ 9. 대안: 헌정 실질적 민주주의
- ▶ 9.1 민주주의는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민주권과 자치라는 의미에서 최고의 규범
- ▶ 9.2 (실질적)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은 인민주권, 자치권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제한하는 헌법상의 광범한 권리·의무 체계의 일부.
- ▶ 9.3 이를 통해 판 빠레이스도 공유하는 민주주의적 독재에 대한 헌정 자유주의의 우려도 종식.
- ▶ 9.4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기본권은 형식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. 이는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헌정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구성요소
- ▶ 9.5 ‘정의로운 민주주의’, 곧 정의에 부합하며 효율적인 민주주의도 이 헌정 실질적 민주주의에 기반할 때, 더 잘 설계될 것.
- ▶ 감사합니다!